

# “종교 개혁을 뒤엎는 사건”

By Dave Hunt

From the Introduction of 'A Woman Rides the Beast', Harvest House Publishers 1994

1994년 3월 29일, 지난 500년간의 교회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기정 사실로 드러났다. 바로 그 날,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이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의 연합: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찬 선교”(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The Christian Mission in the 3rd Millennium, 이하 ‘ECT 문서’)라는 제목의 공동 선언문에 조인하였다. 사실상 그 문서는 종교개혁을 뒤엎어버렸고, 의심의 여지 없이 가까운 장래에 전 기독교를 통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같은 놀라운 일은 지난 2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치밀한 계획과 협상의 결과이다. 그 안에 포함된 각 과정은 항상 바티칸에 의하여 감시 되었고 승인 되었다. 1994년 3월 30일, 미국 전역에 여러 신문들을 통하여 보도된 New York Times지 공개 기사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낙태와 포르노그래피(음란성 제작물)에 대항하는 운동을 통해 함께 노력했으며, 이제 저명한 카톨릭 및 복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양떼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약, 즉 최종적으로 서로를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역사적 이라고 불리는 성명서에서 팻 로버슨 (Pat Robertson) 과 찰스 콜슨 (Charles Colson: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은 오늘 날 보수적인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크고 정치적 활동이 큰 종교 그룹들을 믿음의 줄로 묶어 강건하게 하자는데 동의 하였다. 그들은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상대방의 양떼를 적극적으로 개종 시키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네바 칼리지의 학장이며 미국 복음주의자 연합회의 회장을 지냈던 존 화이트(John White)는 이 선언문이 미국 내 종교계에서 수세기 동안의 불신 끝에 이루어진 “승리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한 다른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CCC의 창설자 빌 브라이트 (Bill Bright), 위튼 대학의 마크 놀 (Mark Knoll). . . 오스 기네스(Os Guinness), 하나님의 성회의 제씨 미란다 (Jesse Miranda), 풀러신학교 학장인 리차드 모우 (Richard Mouw),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제이 아이 팩커 (J.I. Packer), 허버트 슬로스버그(Herbert Schlossberg) 등이 있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남캘리포니아 의장인 로버트 시몬즈 (Robert Simonds)는 이 선언에 대하여 갈채를 보냈으며 이번

사건이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간의 협력 증진”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후로 몇몇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 선언에 서명을 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종교개혁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 하게도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을 연합”(ECT)시키려는 이 담대한 시도는 그 어떤 사건이나 시도 보다도 복음주의자들을 더 분리 시킬 것이며, 그것은 그 문서를 서명한 자들이 예상했던 바이다.

25 쪽 분량의 ‘ECT 문서’ 는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몇몇 중대한 차이점들 (바티칸의 중요성 및 성경의 권위 등과 같은 것) 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 즉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부인되고 있다. 이처럼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이번에 이루어진 동의를 핵심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번의 역사적 선언 뒤에 깔려 있는 중요한 요소는 저명한 복음주의자들이 예전에는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것, 즉 “활동적으로 카톨릭 교회에 참석 하면 크리스찬이 된다” 라는 생각을 인정한 점이다. 만일 그것이 참으로 옳다면 종교개혁은 비극적인 실수인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카톨릭주의를 거짓 복음으로 폭로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 당한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은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혁자들이 옳았다면 이번에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연합은 전체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고, 동시에 가장 교묘한 사건이 될 것이다. 어찌 되든지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한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번의 연합 선언을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 문서는 지난 몇 십년 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모든 종교 통합 논의들을 변경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 . 이것은 새 날을 의미하며, 문화사역과 신학의 근본사역에서 사실상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복음주의자들 만큼이나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다 (1).

근의 뉴스 보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한 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신학적 차이점들은 너무나 큰 것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차이점들을 타협하기 보다는 순교하는 길을 택하였고, 그들을 죽인 카톨릭 교도들 역시 그 같은 차이점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똑같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차이점들이 어떻게, 언제 해소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로 말미암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카톨릭주의 복음을 성경적이라고 이제 와서 선포하게 되었는가? 그 복음은 개혁자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 카톨릭의 복음은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카톨릭과 타협할 수 없는 그 확신이 이제 사회적, 정치적 큰 연합 활동을 위하여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흐려져 버렸는가?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자기만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모두 크리스찬이며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ECT 문서’는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모두 사도신경을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 . .”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 신조는 니케아 신조나 다른 신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고전15:1-4, 롬1:16)를 전혀 나타내 주지 않는다. 물론 교도들도 사도신경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적 크리스찬들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카톨릭 교도를 (혹은 프로테스탄트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카톨릭 교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주의자들이 이해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다.

한 때 로마 카톨릭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와 대부분 유럽에서 국가의 공식 종교였다. 따라서 다른 종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므로 사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제 다른 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카톨릭 교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개종 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번에 발표된 ‘ECT 문서’의 서명자들이 동의한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카톨릭교회가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번에 미국에서 서명 된 문서와 같은 것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브라질 내에서 복음주의 이단 종파(Evangelical Sects)가 놀랍게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 놀란 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카톨릭 양떼로부터 데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하여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 . . 제 31차 브라질 주교 총회에서 . . . 본(Bohn) 주교는 복음주의자들이 자국 내 바티칸의 영향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선전 포고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 . . 카톨릭 교회의 조직은 육중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밑으로 격파 시킬 것이다.” 본(Bohn)의 말에 따르면 브라질 내 13개 주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교파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사력을 다한 거룩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조약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브라질에서 행하는 모든 복음 전도의 노력을 멈출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본은 자기의 제안을 최후 통첩이라고 부르며, 거기에는 대화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2).

본(Bohn) 주교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는 것이 여전히 카톨릭의 공식 정책임을 인정하였다.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같은 박해의 진상은 카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 모두를 놀라게 만들 것이다. 브라질 주교 회의에서의 관심사는 복음의 진리나 영혼 구원이 아니고, 바티칸의 영향을 유지하는 것과 사람들을 카톨릭교회 안에 잡아 두려는 것 뿐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주목할 일이다.

또한 본(Bohn) 주교가 브라질 내에서 위협을 통해 요구하는 그 협정이 미국 내에서는 콜슨(Colson), 팩커(Packer), 브라이트(Bright), 로버트슨(Robertson) 등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Bohn)의 위협이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콜슨(Colson)의 인터뷰 기사에 잘 드러나 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들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의 성장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로 인해 ECT문서에 서명한 복음주의자들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고 그는 진술하였다(3).

복음주의자들이 휴전에 서명하였지만, 로마는 프로테스탄트를 개종 시켜 카톨릭교회 안으로 데려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마의 ‘2000 복음화’라는 사업에는 1994년도에만 미국 전역에 걸쳐 “바울 추종자 복음선포 훈련기관”(워싱턴 D.C. 소재, 1994년 6월26-30일, 7월 24-28일), “복음 전도를

위한 카톨릭 학교들의 기관장 협회”(워싱턴 D.C. 소재, 1994년 8월 3-6일) 등의 그룹을 포함하는 여섯 번의 복음 전도훈련 회의의 뜻을 갖는다. “카톨릭 복음전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회의들은 그 사역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훈련이다. 찰스 콜슨(Charls Colson)은 1994년 5월 11-14일에 미시간주 입실란티에서 열렸던 “요한 바오로 2세와 신복음 전도 비전을 수행하며”라는 회의에서 특별 강사로 발언하였다. 그는 바티칸에 의하여 “2000 복음화”를 이끌어 가는 톰 포레스트(Tom Forrest) 사제 같은 카톨릭 지도자들과 함께 연설하였다(4).

이번 ECT 문서에 서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하여 카톨릭 교도들과 함께 하는 영적 동반자 상을 분명히 꿈꾸었을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복음화”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카톨릭 교도들에게 있어서 “복음화”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ECT 문서는 이 같은 점을 무시하였다. 톰 포레스트 사제가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의 모임에서 “카톨릭 복음화”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들어보자.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을 카톨릭교회 내로 데려 오므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로 풍성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화라는 것은 그 개종자가 카톨릭교회 내로 인도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자 이제 교황 바오로 2세의 말을 들어 보자. 여러분은 “현대 사회에서의 복음화에 관하여”라 불리는 이 문서를 집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 복음화 된 어떤 사람의 결심은 결코 추상적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즉, ‘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 . . 우리는 카톨릭교회에 들어 오는 것을 통해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구원성사를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다음의 말을 좋아 하며 따라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 한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구원성사” 이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 그 자체를 말한다. 만일 그것이 교회 그 자체를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카톨릭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화해야 한다.

당신들은 결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되라고 해서 안 되며 반드시 그들을 카톨릭 교도들이 되도록 초청해야만 한다. 왜 이것이 그처럼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일곱 성사가 있는데 카톨릭교회만 이 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우리에게서는 성당 내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

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그리스도는 매번 미사 때마다 제물 로서 산채로 제단 위에 있으며. . . . 우리는 그 화체(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 빵과 포도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카톨릭 교도들로서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요 낙원의 여왕께서는 그녀가 영광 중에 우리를 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카톨릭 교도들로서 우리에게는 교황 제도가 있어서 첫번째 교황인 베드로부터 지금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으며. . . .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반석이 있다.

카톨릭 교도들로서 우리에게는 - 나는 이것을 무척 사랑하는데 - 연옥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는 연옥 없이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연옥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다.

따라서 카톨릭 교도들로서 우리의 임무는 2000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을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서 카톨릭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고 카톨릭 역사의 셋째 천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다(5).

이같이 명백한 로마 카톨릭의 “복음화”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카톨릭 교도들과 함께 공동 복음화 노력을 하는 있는 중이다. 카톨릭 교도에게는 “구원이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유아세례부터 시작되는 매우 긴 과정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사람과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에 의존한다. 즉, 그들의 구원은 성례, 고해성사, 선행, 이 땅에 있는 혹은 연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이는 면죄부, 끝 없는 미사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로사리 기도 등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카톨릭의 복음화는 “행위”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행20:24)과는 반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참된 성경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카톨릭 크리스찬들은 결국 로마 카톨릭주의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점으로 인해 고민하며, 그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수의 무리들이 카톨릭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카톨릭에 관하여 자신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차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지금 큰 혼란이 종교개혁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덮

어 버리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카톨릭/프로테스탄트의 전체적 관계에 필요한 빛을 밝혀주는데 있으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카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의 다음 부분이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밝혀 드러내고 혼동을 없애 줄 것을 희망하며 기도 드린다.

#### NOTE

- (1) **Moody, May/1994, p.62**
- (2) **Charisma, May/1994**
- (3) **New York Times, 3/30/1994, p.A8**
- (4) **New Evangelization 2000, Issue No. 23, 1994**
- (5) **“Roman Catholic Doubletalk at Indianapolis’90”, Foundation, Jul/Aug, 1990**

#### ECT Participants:

Mr. Charles Colson - Prison Fellowship  
Fr. Juan Diaz-Vilar, S.J. - Catholic Hispanic Ministries  
Fr. Avery Dulles, S.J. - Fordham University  
Bishop Francis George, OMI - Diocese of Yakima  
Dr. Kent Hill - Eastern Nazarene College  
Dr. Richard Land - Christian Life Commission of S.B.C.  
Dr. Larry Lewis - Home Mission Board of the S.B.C.  
Dr. Jesse Miranda - Assemblies of God  
Msgr. William Murphy - Chancellor of the Archdiocese  
Fr. Richard John Neuhaus - Institute on Religion & Public  
Mr. Brian O’Connell -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Mr. Herbert Schlossberg - Fieldstead Foundation  
Archbishop Francis Stafford - Archdiocese of Denver  
Mr. George Weigel -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Dr. John White - Geneva College and the National Ass.

#### ECT Endorsed By:

Dr. William Abraham - Perkins School of Theology  
Dr. Elizabeth Achtemeier - Union Theological Seminary  
Dr. Bill Bright -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Dr. Richard Mouw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r. Mark Noll - Wheaton College  
Mr. William Bentley Ball - Harrisburg, Pennsylvania  
Dr. J. I. Packer - Regent College (British Columbia)  
Rev. Pat Robertson - Regent University  
Pro. Robert Destro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Fr. Augustine DiNoia, O.P. - Dominican House of Studies  
Fr. Joseph P. Fitzpatrick, S.J. - Fordham University  
Mr. Keith Fournier -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Bishop William Frey - Trinity Episcopal School for Ministry  
Pro. Mary Ann Glendon - Harvard Law School  
Dr. Os Guinness - Trinity Forum  
Dr. Nathan Hatch - University of Notre Dame  
Dr. James Hitchcock - St. Louis University  
Pro. Peter Kreeft - Boston College  
Fr. Matthew Lamb - Boston College  
Mr. Ralph Martin - Renewal Ministries  
Mr. Michael Novak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John Cardinal O’Connor - Archdiocese of New York  
Dr. Thomas Oden - Drew University  
Dr. John Rodgers - Trinity Episcopal School for Ministry  
Bishop Carlos A. Sevilla, S.J. - Archdiocese of San Francisco